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이 희생자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원형을 넘어 복원할 것"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이 본격화한 가운데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17일 "원형 이상의 복원, 원형을 넘어서는 복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도청 건물 훼손에 반발해 농성 투쟁을 해온 5월 어머니회원들과 함께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배를 마친 김 단장은 "민주화로 가는 현대사에서 뼈아픈 장소"라며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옛 전남도청을 의미 있는 장소로 잘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옛 전남도청이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국민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장소로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과 전남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건물 6개 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3년간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회 등 옛 전남도청복원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농성 중단을 선언하고 복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원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차정준 기자

광주·전남, 공무 중 다친 경찰 증가

광주 11%, 전남 38% 나란히 ⬆
범인에게 피습당한 경찰관 급증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근무 중 다친(공상) 경찰공무원 수가 지난해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경찰관의 지난해 공상자는 110명으로, 2017년 81명과 비교해 35.8% 늘었다.

특히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경우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25명으로 127.3%나 급증했다.

교통사고는 12.9%, 안전사고는 23.7% 각각 늘었다.

광주는 지난해 경찰관 공상자가 99명을 기록, 전년 대비 11.2% 늘었다.

광주도 범인피습으로 발생한 공상자가 2017년 16명에서 2018년 27명으로 68.8%가량 늘었고, 안전사고는 31.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천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15.8% 증가해 1736명을 기록했다.

주로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늘어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15.8% 증가했다.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1000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0건, 전남에서는 16건 사용되는 데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다치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줄여 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광주,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진주 물난리 피해도로 몇년째 '나몰라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복구 뒷짐
빗물 처리 배수로 시설 설치 안돼

진성 고갯길 도로변 일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변 물난리를 겪은 지역에 몇 해째 피해가 되풀이 되는데도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지않고 나 몰라라 식으로 대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산에서 진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 2호선은 4차선 도로이다. 이 구간 중 진성면에서 한국국제대학교으로 넘어가는 진성 고갯길 도로변 일대는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충분히 빠지도록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로에 고이는 빗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내리막길 중간중간 배수로가 부족해 폭우가 내릴 경우 도로의 빗물이 주변 공장과 마을 등으로 흘러 넘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태풍이 번갈아 휩쓸고 지나간지 1개월가량이 흘렀지만 이 지역에는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다.

실제 큰 비만 내리면 2호선 도로와 비탈면 지역에 흘러내린 물이 도로를 따라 도로옆 공장 차고지로 흘러들면서 한때 업무가 마비되고 차량 운행을 못할 정도로 공장안 출입구 내리막길에 깔아 놓은 자갈과 석분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공장 측에서는 2호선 도로 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게 사비를 들여 블록을 쌓고 도로 턱을 높이고 하였으나 빗물이 공장 쪽으로 유입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로변에 배수관 시설이 부족해, 비만 오면 이 지역에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피해대책을 마련했으나 내년에 배수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등 공장안 피해도로 원상복구는 예산 탓만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경남=이경화 기자 7470002@

인천시, 법인택시와 손잡고 청결 점검

28일까지 12일간 진행

인천시가 인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차량 청결상태 및 차량의무 표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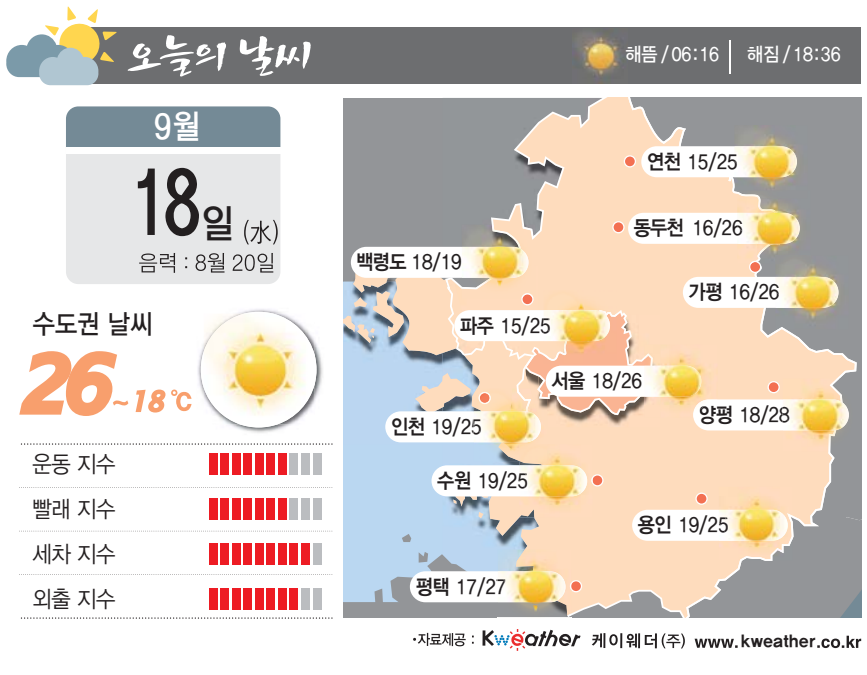
법인택시 전체 5385대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업체 주사무소 차고지에서 자체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불법 부착물 정비 등), 부제표시, 택시자격증명, 교통 불편 스티커 등 부착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미터기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계도조치를 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인택시 8,983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바 있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은 "이번 법인택시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GS리테일, 국내 1호 RMHC하우스 열어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부지〉

GS리테일은 17일 경남 양산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부지 내 국내 1호 RMHC하우스(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Korea,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채러티 코리아) 오픈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은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 전무를 비롯해 제프리 존스 RMHC코리아 회장, 김일권 양산시장,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남 양산에 국내 1호로 오픈한 RMHC하우스는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중증 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쉼터다.

GS리테일은 지난해 9월 RMHC코리아와 5개 파트너사(동원F&B,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푸드, LG생활건강)와 손잡고 각각 유제품, 음료, 과자, 냉동식품, 위생용품 카테고리에서 10여 개의 차별화 나눔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해당 상품 매출액의 1%를 RMHC코리아에 기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1년간 전국 30여개의 GS25, GS THE FRESH, 랄라블라 매장에서 동전없이 모금 가능한 전자모금함 '디지털 코인박스'를 통해 모은 기부금액까지 더해 연말까지 약 1억2000만 원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광주전남중기청

기술개발자금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 수요, 대일 의존도, 중소기업 적합성,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고, 심층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업체당 2년간 6억원 이내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차정준 기자